

피부 축적된 최종당화산물 측정으로 일상 속 노화 방지

삼성전자 갤럭시 언팩 2024

갤럭시 워치7 시리즈

고도화된 바이오액티브 센서로 사용자 건강 상태 종합적 파악 수면 무호흡 기능도 최초 탑재 심전도·혈압 모니터링 기능도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탑재한 갤럭시 워치 시리즈를 공개하고 헬스케어 시장 장악에 나섰다. 웨어러블 제품 갤럭시 워치 시리즈는 한층 고도화된 건강 모니터링 기능을 도입했다. 특히 워치 시리즈 가운데 최초로 '최종당화산물 지표' 기능을 탑재해 일상 속에서 노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갤럭시 언팩 2024' 행사를 개최하고, 웨어러블 제품인 ▲갤럭시 링 ▲갤럭시 워치7 ▲갤럭시 워치 울트라를 공개했다.

삼성전자 MX사업부장 노태문 사장은 "최신 갤럭시 웨어러블 제품은 삼성전자의 최첨단 헬스 기술과 혁신에 결



삼성전자가 10일 공개한 웨어러블 기기 '갤럭시 워치 울트라'를 착용한 모습. /구남영 기자

력시 AI가 더해져 더욱 건강한 일상을 지원한다"며 "사용자는 이를 통해 한 차원 높은 인사이트를 제공받고 완전히 새로워진 건강 관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갤럭시 워치7, 일상 속 종합 건강 모니터링 지원

'갤럭시 워치7'은 진화된 혁신 센서 기술을 통해 고도화된 모니터링과 개인 맞춤형 기능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추가된 '바이오액티브 센서'는 다양한 종류의 LED 센서를 탑재했으며 센서의

위치도 변경해 더욱 정확하고 다양한 건강 데이터를 제공한다.

특히 워치7은 갤럭시 워치 시리즈 중 최초로 '최종당화산물 지표' 측정을 제공한다. 최종당화산물은 사용자의 생물학적 노화 과정을 반영하는 건강 지표 중 하나로, 평상시 식단과 생활 습관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갤럭시 워치7은 센서를 통해 피부에 축적된 최종당화산물 측정을 지원해, 사용자가 건강 상태를 보다 종합적으로 파악하게 돕는다.

이와 함께 '수면 무호흡 기능'을 워치

시리즈 최초로 탑재했다. 해당 기능은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았으며 정확도를 높인 수면 AI 알고리즘은 더욱 정확한 수면 측정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심장 건강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한다. '불규칙 심장 리듬 알림' 기능은 불규칙한 심장 박동을 감지해 '심방세동(AFib)'의 가능성을 알려준다. 심전도(ECG)와 혈압(BP) 모니터링 기능은 사용자의 심혈관 건강 관리에 도움을 준다.

◆'워치 울트라', 운동 매니아에 추천
갤럭시 워치 라인업에 새롭게 추가된 '갤럭시 워치 울트라'는 보다 극대화된 성능을 통해 한 차원 높은 아웃도어 피트니스 경험을 제공한다. 갤럭시 울트라는 원형 디자인에 새로운 쿠션 디자인이 더해져, 보다 강력한 보호 기능을 제공한다.

특히 울트라는 야외 활동에 최적화된 내구성을 제공한다. 강한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티타늄 프레임을 적용하고, 10ATM 방수를 지원해 바다 수영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해발 고도 마이너스(-) 500미터에서부터 최대 9000미터 높이까지 사용을 지원해, 극

한 환경에서도 다양한 피트니스 활동을 측정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사용자의 운동 효율을 극대화하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멀티 스포츠 타일' 기능은 수영, 사이클링, 철인 3종, 듀애슬론 등 다양한 멀티 스포츠의 결과를 측정해 준다.

특히 늘어난 배터리 수명도 워치 울트라 장점이다. 절전 모드 경우 최대 100시간, 운동 중 절전모드에서는 최대 48시간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갤럭시 워치'와 '갤럭시 링'을 함께 사용하면, 사용자는 더욱 향상된 건강 모니터링을 경험할 수 있다. 끊임 없이 데이터를 측정을 통해 더욱 종합적인 건강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으며, 두 제품을 모두 사용하면 헬스 측정의 효율화를 통해 '갤럭시 링'의 배터리 지속시간이 최대 30%까지 연장된다.

워치 시리즈와 갤럭시 링은 오는 24일부터 전세계에 순차적으로 출시 예정이다. 갤럭시 링은 티타늄 블랙, 티타늄 실버, 티타늄 골드 3가지 색상이 총 9개의 사이즈로 출시되며, 가격은 49만 9400원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두산, '클린에너지·스마트머신·첨단소재'로 구조 재편

에너지·합병·포괄적 주식교환 결정 사업 조정으로 시너지 창출 기대

두산그룹이 사업 시너지 극대화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사업 구조 재편에 나섰다.

두산은 그룹의 핵심 사업을 '클린에너지(Clean Energy)', '스마트머신(Smart Machine)', '반도체 및 첨단소재(Advanced Materials)' 등 3대 부문으로 정하고, 계열사들을 사업 성격에 맞는 부문 아래 위치하도록 조정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두산에너지빌리티, 두산퓨얼셀 등을 주축으로 하는 '클린에너지' 부문은 원전 및 SMR, 가스·수소터빈, 해상풍력,

수소 및 암모니아, 리사이클링 등 신재생 에너지를 포함한 친환경 에너지 사업 전반에 걸쳐 포트폴리오를 갖추게 된다.

'스마트머신' 부문은 이번 사업구조 재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다. 소형 건설기계 시장, 협동로봇 시장에서 각각 글로벌 탑티어로 자리잡은 두산바캬트와 두산로보틱스가 사업적으로 결합하게 된다. 현재 두산에너지빌리티 자회사인 두산바캬트는 인적분할, 두산로보틱스와의 합병 및 포괄적 주식교환을 거쳐 두산로보틱스의 완전 자회사가 된다.

'반도체 및 첨단소재' 부문의 핵심은 시스템반도체 웨이퍼 테스트 분야 국내 시장점유율 1위인 두산테스나다. 이를 중심으로 반도체, 휴대폰, 전기차 배터

리에 들어가는 전자소재 생산 등을 하고 있는 그룹 내 첨단소재 사업이 이 부문에 자리잡게 된다.

두산그룹 관계자는 "업종 구분 없이 혼재돼 있는 사업들을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사업끼리 모아서 클러스터화하는 게 이번 사업 재편의 목적"이라며 "이번 재편의 대상이 된 두산에너지빌리티, 두산바캬트, 두산로보틱스 3사 모두 '원-원-원'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두산바캬트를 100% 자회사로 두게 되는 두산로보틱스는 두산바캬트가 북미, 유럽 등에 걸쳐 보유한 강력한 네트워크 및 파이낸싱 역량 그리고 경영인프라 등을 활용할 수 있어 선진시장에서의 성장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또한 두산바캬트의 생산시설 자동화 확대에 따라, 해당 시설에 대한 협동로봇 제품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캡티브 매출 증대도 긍정적인 효과로 예상된다.

무인화, 자동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두산바캬트는 두산로보틱스의 로봇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애플리케이션을 보다 다양화할 수 있게 되고, 두 회사의 기술을 접목한 신개념 제품 개발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산관계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모션 제어 기술 개발, 비전 인식 기술 강화, 고성능 자율주행 기술 개발 등 양사가 개별적으로 진행해오던 R&D(연구개발) 과제를 공동수행함으로써 중복 투자를 견어내고 시너지를 내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존 지배구조에서 그룹의 중간지주 역할을 해오던 두산에너지빌리티는, 본연의 에너지 사업과 미래 성장동력인 원자력, SMR, 가스·수소터빈, GT·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사업 포트폴리오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된다. 또한, 이번 사업구조 재편 과정에서 약 1조 2000억원 가량 차입금 감축 효과가 발생함으로써 재무구조도 개선된다.

두산 관계자는 "이번 사업구조 재편은 효율적 경영환경 조성 과 사업부문별 시너지 창출 효과를 내는 것은 물론, 새로운 사업기회를 찾고 넓혀가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두산에너지빌리티, 두산바캬트, 두산로보틱스 3개사는 이날 각각 이사회를 열고 분할, 합병, 포괄적 주식 교환 등을 결정했다.

/차현정기자 hyeon@

한화큐셀, 美서 257MW 규모 태양광 발전소 착공

축구장 790개 규모 부지에 모듈 공급 2025년부터 순차적 상업운전 시작

한화솔루션 큐셀부문(이하 한화큐셀)이 미국에서 총 규모 257MW(메가와트)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를 개발(Develop)하고 공사에 착수한다. 프로젝트의 설계·조달·시공(EPC)도 직접 수행할 예정이다.

한화큐셀은 전력 수요처(off-take)인 플랫 리버 전력청(Platte River Power Authority; PRPA)과 착공식을 개최하고 발전소 건설에 본격 돌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 콜로라도 주 웰드(Weld) 카운티에서 축구장 790개 크



한화큐셀이 미국 콜로라도주에 건설 중인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 /한화큐셀

기에 맞먹는 약 1400에이커(약 5.6km²) 규모의 부지에 54만 개 이상의 모듈을 공급하고 태양광 발전소를 개발 및 건설하는 사업이다.

발전소는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상업운전을 시작해 PRPA와 맺은 PPA(전력 공급계약)에 따라 재생에너지 전

력을 제공할 예정이다.

최근 한화큐셀은 미국에서 연달아 대형 그린에너지 프로젝트의 개발·EPC를 수행하며 다양한 다운스트림 사업 기회를 적극 확보하고 있다. 한화큐셀은 지난 5월 50MW 규모의 태양광 모듈과 200MWh 용량의 ESS(에너지 저장장치)로 이뤄진 프로젝트의 건설을 완료하며 재생에너지 솔루션 공급 기업으로서의 역량을 증명할 바 있다.

이 발전소는 현재 미국 빅테크 기업인 메타(Meta) 사에 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같은 해 4월에는 와이오밍 주에서 15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의 개발·모듈 공급·EPC를 모두 수행한 끝에 완공했다. /차현정기자

LS전선, 도시철도용 전차선로 국산화

R-Bar 구조 단순... 유지보수 편해 전차선 교체비용 80% 감축 기대

LS전선이 국내 도시철도의 노후된 구조물 교체에 나선다.

LS전선은 도시철도용 직류(DC)용 강제 전차선로(Rigid Bar, R-bar)를 국산화했다고 11일 밝혔다.

R-bar는 전력을 공급하는 전차선을 알루미늄 합금으로 된 바(Bar)에 일체로 고정시킨 구조물이다. 일자 형태로 도시철도의 터널과 지하 구간과 같은 협소한 공간에 주로 사용된다.

저속으로 운영되는 도시철도는 주로 DC 1500V 전기방식을 사용한다. 그동안 국내는 DC용 R-Bar가 개발되지 않

아 일본산 T-Bar(T자 형태)와 카테너리 방식(전차선을 공중에 매달아 사용)을 채택해 왔다.

R-Bar는 기존 T-Bar 대비 구조가 단순해 공사 및 유지보수의 경제성과 편의성이 높다. 터널건설 비용은 30%, 전차선 교체 비용은 80%까지 줄일 수 있으며, 전차선 교체와 고장 시 응급 복구도 용이하다.

LS전선 관계자는 "구형 T-Bar는 다른 나라에서는 더 이상 도입하지 않고 있다"며 "국내 도시철도 대부분이 30년 이상 경과되었기 때문에, 노후된 T-Bar와 카테너리 방식을 R-Bar로 교체하는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차현정기자